

[ 실버 ]

■ 광주 서구문화센터 '어르신 동화구연' 프로그램

“동화 속 나라에서 손주들과 놀아요”

“손주 녀석이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해요.”

신순심(63)씨는 동화구연을 통해 손자·손녀들과 한층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동화에 나오는 역할 놀이를 함께 하면서 웃음을 나누고 있다.

신씨는 동화구연을 통해 동화 '여우와 포도' 주인공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손주들에게 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신식' 할머니가 됐다.

신씨가 동화구연을 배운 것은 광주서구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당당한 노후! 어르신 동화구연'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리면서 부터.

지난 9월4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신씨처럼 동화로 손주들과 함께 하려는 30여명의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예전 자신들의 할머니와 다른 방식으로 손주들과 교감하려는 노년들이다.

'당당한 노후! 어르신 동화구연' 프로그램은 녹록치 않은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이론·실기를 병행해 실시된다. 이론 교육은 표준발음, 발음법, 구연자세 등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구연동화 화술 연습을 비롯해 아이들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손유희(손을 이용한 놀이), 기초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법 등으로 진행된다.

이론·실기 병행... 할머니 30여명 참여

발성 연습·성대 모사에 레크리에이션도

여기에서 동화구연의 생명인 발성·발음 연습을 비롯해 동시암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발성 연습에서는 동화속 주인공들의 연령대에 맞춰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령대별 목소리 구연을 비롯해 각종 동물소리를 성대 모사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수업내용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동시 표현법도 익힌다. 동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예민한 감성을 일깨우기 위해 풍부한 감정을 바탕으로 동시를 읽는 연습이다.

여기에서 동화듣고 나서 감상문 쓰기 등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수강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구연동화 교구제작. 비교적 연령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바느질, 정교하게 종이오리기 등



광주 서구문화센터가 진행하는 '당당한 노후! 어르신 동화구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임진옥 강사로부터 구연동화 이론수업을 받고 있다. <서구문화센터 제공>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어린이들에게 구연동화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입체적이고 실감나게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관·산·학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광주 협력체제 출범

광주 지역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제가 출범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사업본부(본부장 김용화)는 지난 16일 광산구청에서 광산구청, 하남산단단지관리공단, 한국산학협동연구원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유관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이들 기관은 광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보급 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호남사업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한편,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화 본부장은 "일할 의욕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고령화시대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노인취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개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사업본부는 광주·전남·전북의 고령사회대비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괄·관리하는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일자리 개발·보급, 노인인력개발, 각종 교육 및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YMCA 동화구연 지도자 자격증이 주어진 다. 서구문화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동화구연을 통해 자신들의 손주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버 라운지

권성욱



과거에 '노망났다', '망령났다'는 의미로 통용되던 치매가 이제는 노인이라면 대부분 당연히 겪게 되는 운명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정부의료기관의 검증을 거친 정확한 치매 유병률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백명 중 8.3명이 치매 노인으로 추정되고, 2000년에는 27만 7천여명, 2020년에는 61만 9천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혈관성 치매는 두 번째로 흔한 것으로 뇌 속에 있는 크고 작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질증, 심장병 등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 주로 팔, 다리 등의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구동장애, 시각장애 등도 흔하게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질병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2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며 발생 확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약간 높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기억장애나 언어장애는 초기에 그리 두드러지지 않지만 손발 떨림이나 땀 뻘뻘, 느린 행동 등 여러 운동의 장애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치매노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대비책은

이러한 치매증세는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치매라는 것 자체가 환자의 보호자, 특히 서구에 비해 아직까지 가족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심각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치매는 지속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게 될 가족들에게 다각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불구하고 치매노인과 관련된 보장이 아직도 빈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퇴행성 노인환자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치매정책은 대부분 생활보호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계층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치료비에 대한 높은 부담률은 가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 대상자의 확대와 치료비의 상대적 부담 감소에 이끌렸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치매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계나 주보호자 및 가족의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시설 입소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상담 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폭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대대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치매' 제도적 대책 서둘러야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치매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타고나야 하고 둘째, 의식장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기억·지능·인격기능의 장애가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것을 포함하여 100여종에 이른다. 알츠하이머는 '노인의 에이즈'로 불리며 환자 자신의 생존능력과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원의 삶에도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주로 뇌의 손상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기억, 생각, 행동에 손상을 일으키는 진행성 질환으로 보통 50세를 전후로 하여 발생률이 높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주 가벼운 건강증에서 시작하여 점차 언어 구사력, 이해력, 읽고 쓰기 능력 등의 장애를 가지고, 환자들이 점점 더 악화되기도 하며 매우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집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가 있을 수는 있으나 치매라는 것 자체가 환자의 보호자, 특히 서구에 비해 아직까지 가족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심각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치매는 지속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게 될 가족들에게 다각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불구하고 치매노인과 관련된 보장이 아직도 빈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퇴행성 노인환자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치매정책은 대부분 생활보호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계층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치료비에 대한 높은 부담률은 가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 대상자의 확대와 치료비의 상대적 부담 감소에 이끌렸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치매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계나 주보호자 및 가족의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시설 입소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상담 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폭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and company information.

국비 교육생 모집!! Honam Vocational College advertisement for national education students.